

조선청년운동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주시며

새해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내 조국땅 그 어디서나 어버이수령님의 강성대 국건설원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이 펴감에 벌어지고 있다.

이 장엄한 전군대오의 맨 앞에는 조선로동당원들과 함께 당과 혁명을 위해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우리의 미운 청년들이 서 있다.

선군의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나가고 있는 우리의 미녀봉우병사들, 공장과 농촌, 건설장들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가고 있는 로동청년들, 세계를 놀래우는 혁력한 성과를 이룩하며 최첨단물파의 열풍을 일으켜가는 청년과학자들,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국제경기무대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쳐가는 자랑스러운 청년체육인들……

그들의 씩씩하고 털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청년군민의 가슴은 주제의 조선청년운동을 빛나게 개척하고자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철세의 위인들에 대한 나합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으로 뜨겁게 것이다.

오늘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창립된 후로부터 6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현명한 병도법에 자기의 정당성을 굽지 않고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용감하게 전진하는 조선청년들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청년들은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가장 활력을 갖는 부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위력의 철량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개척기부터 견지하여오신 청년 중시사상이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조선청년들

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뒤로 하여 일제의 종관명에서 갖은 수난과 모욕을 받아야만 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휘날린 『E. C』의 기자와 더불어 조선청년들은 역사에 정진한 자지의 새 역사를 아로새기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순간아래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성장한 새 세대

의 열혈혁가들은 항일혁명대오의

물걸리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워업

을 이룩하는 성전에서 전위적역할

을 휘둘러 수령님의 의해 시작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새 조국건설의

나날 조선청년운동의 획기적전진의

길을 걸어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잊지 않고있다.

항일의 깊고도 억센 뿌리에서

마련된 우리 청년들의 힘을 누누

보다도 깊이 결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민주주의기

발아래 굳게 끌어세우는 사업에

선착적인 힘을 품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운동의 분별을 막고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단일한 청년조직으로 이어세우기 위하여 『국악청년회』는 민주주의기발아래 단결하라!』라고

는 구호에 공청을 주동적으로

개혁과 중요산업국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과 공장들에서 애

국의 수유를 끌어세우는 청년

조직으로 건설하기 위한 파

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었다.

민청창립의 나날 우리 청년들이 민주주의기발아래 단결하라!』라고

는 깊이 새겨 놓았다고 있다.

가령했던 조국방전쟁시기 당시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견전장으로 달려나간 전사

로 청년들이였고 새가루만 날려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온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뒤로 하여 일제의 종관명에서 갖은 수난과 모욕을 받아야만 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우

리 혁명의 개척기에 휘날린 『E. C』의 기자와 더불어 조선청

년들은 역사에 정진한 자지의 새

역사를 아로새기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순간아래 혁명

의 폭풍우속에서 성장한 새 세대

의 열혈혁가들은 항일혁명대오의

물걸리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워업

을 이룩하는 성전에서 전위적역할

을 휘둘러 수령님의 의해 시작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새 조국건설의

나날 조선청년운동의 획기적전진의

길을 걸어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잊지 않고있다.

항일의 깊고도 억센 뿌리에서

마련된 우리 청년들의 힘을 누누

보다도 깊이 결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민주주의기

발아래 굳게 끌어세우는 사업에

선착적인 힘을 품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운동의

분별을 막고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단일한 청년조직으로 이어세우기

위하여 농촌과 공장들에서 애

국의 수유를 끌어세우는 청년

조직으로 건설하기 위한 파

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었다.

민청창립의 나날 우리 청년들이

민주주의기발아래 단결하라!』라고

는 깊이 새겨 놓았다고 있다.

가령했던 조국방전쟁시기 당시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견전장으로 달려나간 전사

로 청년들이였고 새가루만 날려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온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뒤로 하여 일제의 종관명에서 갖은 수난과 모욕을 받아야만 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우

리 혁명의 개척기에 휘날린 『E. C』의 기자와 더불어 조선청

년들은 역사에 정진한 자지의 새

역사를 아로새기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순간아래 혁명

의 폭풍우속에서 성장한 새 세대

의 열혈혁가들은 항일혁명대오의

물걸리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워업

을 이룩하는 성전에서 전위적역할

을 휘둘러 수령님의 의해 시작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새 조국건설의

나날 조선청년운동의 획기적전진의

길을 걸어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잊지 않고있다.

항일의 깊고도 억센 뿌리에서

마련된 우리 청년들의 힘을 누누

보다도 깊이 결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민주주의기

발아래 굳게 끌어세우는 사업에

선착적인 힘을 품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운동의

분별을 막고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단일한 청년조직으로 이어세우기

위하여 농촌과 공장들에서 애

국의 수유를 끌어세우는 청년

조직으로 건설하기 위한 파

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었다.

민청창립의 나날 우리 청년들이

민주주의기발아래 단결하라!』라고

는 깊이 새겨 놓았다고 있다.

가령했던 조국방전쟁시기 당시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견전장으로 달려나간 전사

로 청년들이였고 새가루만 날려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온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뒤로 하여 일제의 종관명에서 갖은 수난과 모욕을 받아야만 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우

리 혁명의 개척기에 휘날린 『E. C』의 기자와 더불어 조선청

년들은 역사에 정진한 자지의 새

역사를 아로새기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순간아래 혁명

의 폭풍우속에서 성장한 새 세대

의 열혈혁가들은 항일혁명대오의

물걸리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워업

을 이룩하는 성전에서 전위적역할

을 휘둘러 수령님의 의해 시작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새 조국건설의

나날 조선청년운동의 획기적전진의

길을 걸어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잊지 않고있다.

항일의 깊고도 억센 뿌리에서

마련된 우리 청년들의 힘을 누누

보다도 깊이 결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민주주의기

발아래 굳게 끌어세우는 사업에

선착적인 힘을 품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운동의

분별을 막고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단일한 청년조직으로 이어세우기

위하여 농촌과 공장들에서 애

국의 수유를 끌어세우는 청년

조직으로 건설하기 위한 파

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었다.

민청창립의 나날 우리 청년들이

민주주의기발아래 단결하라!』라고

는 깊이 새겨 놓았다고 있다.

가령했던 조국방전쟁시기 당시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견전장으로 달려나간 전사

로

순결한 량심과의 리로 걷는 길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천내군 도시경영사업소 도로관리원 한순화동무

한해가 다 저물어가던 지난 해 12월 말이었다. 밤이 펴거나 깊었지만 한순화동무의 집 창가에는 불빛이 거칠줄 몰랐다. 온 가족이 겨울에 넘쳐 잠들지 못하며 웃음속에, 눈물속에 이야기꽃을 피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신을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주시다니... 하늘같은 그 운정에 어떻게 다 보답하겠소?》

남편의 이런 말을 들으며 한순화동무는 또다시 눈굽을 적시였다. 생각할수록 꿈만 같았다. 평범한 도로관리원에 지나지 않는 자기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런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였다.

스스로 도로관리원이 됐지만 어느덧 20여년, 그 나날에는 그 무엇을 바라며 일해오지 않았고 또 오늘과 같은 영광을 그려본 적도 없었다. 다만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자리를 깡그리 바치는데서 기쁨과 행복을 찾았고 그것으로 만족하였을뿐이었다.

그런데 어버이장군님께서 자기의 소행을 그토록 귀중히 여겨주시고 이처럼 빛내여주시었으니 한순화동무는 밤낮으로 도로를 관리하며 소문없이 지내온 나날들을 새삼스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합심 삶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고 당파 운명을 같이 하는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살도록 하여야 한다.》

한순화동무가 천내읍에 세살 림을 갓 편 20여년전 봄이었다. 어느날 한순화동무는 저녁 식사시간이 지나도록 들어들었다. 온 가족이 겨울에 넘쳐 잠들지 못하며 웃음속에, 눈물속에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는 어느 곳에서도 문득 멈추어서는 도로를 수리하는 시아 베지가 눈에 띄었던 것이다.

일을 끝낸 시아베지가 걸에 다가선 한순화동무를 알아본 것은 얼마후였다. 그날 그들은 도로를 따라 나란히 걸으며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 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이 길을 걸을 때면 생각이 깊어지는구나.》

시아베지가 조용히 외우는 말은 한순화동무의 가슴을 콩~ 울리었다. 그의 눈앞으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공장과 농촌,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랐다.

《아버님은 그래서 도로관리원은 아니지만 차바퀴에 페인 길을 보고 그저 지나지 못했어.》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시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날이 수령님, 어떻게 하면 도로로 해도 어지러우면 손을 대고 자석리를 뜯고 하였던 것이다.

도로관리에 필요한 자재들 도 그는 어디서 대주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모두 계손으로 장만하곤 하였다. 어려운 때 비자루 한개 라도 차체로 마련하여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는 것이 바로 공민된 도리라고 늘 생각하는 그였던 것이다.

한순화동무는 자신의 한생을 도로와 빼놓고 생각한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는 어느 한

지점에서 농사태로 하수도가 막혀 도로에 물이 넘쳐나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그는 주저없이 하수도 망에 뛰어들었다. 물은 허리를 치며 세차게 소용돌이쳤다. 억수로 퍼붓는 비속에서 하수도 구멍에 물을 퍼운 화파, 물을 쳐내느라 그의 손은 얼어들었고 나중에는 팔리리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순화동무는 물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가 도로의 물이 죄는것을 확인하고 일순을 거두었을 때 날이 희미 밝아오고 있었다.

물론 그가 온방 도로에서 물과 화파, 물과 씨통질하는것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물이 말끔히 전 환경을 비자루로 깨끗이 쓸어가는 그의 열굴엔 미소가 어려있고 짐으로 물을 끌어온 밭길은 나라에 돌진 틈 가벼웠다.

그는 항상 이렇게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면 건도로에 자기의 량심을 묻었고 뜨거운 땀을 뿌리었다.

비로 그런 인간이 여기에 한 순화동무는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주변에 스스로 많은 나무들로 심었고 담당구간이 아닌 도로로 해도 어지러우면 손을 대고 자석리를 뜯고 하였던 것이다.

도로관리에 스스로 한생을 바쳐가는 한순화동무의 심장은 이런 지향으로 불과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발자국이 어린 도로를 관리하는 궁지와 보람을 안고 어떤 명예도 보수도 비방이 없이 그가 걷는 길에 놓이는 공민의 순결한 량심, 정성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도로관리의 그린 순결한 한순화동무는 비단 도로에만 수놓아져 있지 않다. 조국을 보위

하는 것이 선군시대 공민의 하는 것이 선군시대 공민의 미망한 의무라는것을 깊이 알고 그는 원군사업에도 앞장섰다.

병식을 만들어놓고 기다리던 자식들이 어머니를 찾아 도로에 나갔을 때 그는 생일날이라

물을 먹었지만 아들의 뒤를 이어 딸도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냈다.

국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혁신의 땅을 열두동무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떠간 자식들은 한순화동무의 손에 물을 뺏아았들었다.

《군인들이 날보고 어머니라고 부를 때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병사들 앞에 어깨가 무거워지는군요.》

《나 역시 그렇소. 우리 군인들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부름에 몇몇 할아버지들이 참아온 애국이 있는 것이다.

그러는 자식들을 한동안 바라보던 한순화동무는 그들을 데리고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머니는 일생을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이 태양상 앞에서 다친 맥세를 지켜 살련다.

그러면서 날마다 첫걸음을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는거란다. 비로 이 어머니가 하는 일이 요란하고 큰일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려고 나라에 반드시 필요로 한 일이에 나는 후회없이 이길을 걷는거란다.

앞으로 너희들도 무슨 일을 하든 사회와 집단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조국에 보탬을 주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게 참답게 사는 길이다.》

도로관리에 스스로 한생을 바쳐가는 한순화동무의 심장은 이런 지향으로 불과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발자국이 어린 도로를 관리하는 궁지와 보람을 안고 어떤 명예도 보수도 비방이 없이 그가 걷는 길에 놓이는 공민의 순결한 량심, 정성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한순화동무의 그런 순결한 한순화동무는 자기의 한생을 도로와 빼놓고 생각한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는 어느 한

이런 그였기에 늘 도로에서 살다시피 하는 자가와 몸이 불편한 남편을 걱정하며 이웃들에 이 딸만이라도 결에 두라고 권고하였지만 아들의 뒤를 이어 딸도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보냈다.

10년전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인민군인들을 찾아가 원호돌자를 안겨주고 돌아올 때였다. 말없이 걸음을 멈추는 것을 감감奕은 캡과 함께 풀을 도량을 치기에도 여념이 없었다.

《어머니!》하고 부르며 딸과 같은 자식들은 한순화동무의 손에 물을 뺏아았들었다.

《군인들이 날보고 어머니라고 부를 때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병사들 앞에 어깨가 무거워지는군요.》

《나 역시 그렇소. 우리 군인들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부름에 몇몇 할아버지들이 참아온 애국이 있는 것이다.

그때부터 한순화동무는 그의 가정은 원군사업에 더 열정을 쏟아부었다. 한가지 물자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애썼고 원호돌자를 끌어내서 나쳤다. 오늘도 배우를 찾았지만 그들이 원호돌자를 찾았던 것이다.

어느덧 날이 푸른풀을 밟아왔다. 한순화동무는 어느 날짜 같이 또다시 삽과 비자루를 들고 도로에 나섰다. 원호돌자를 찾았던 것이다.

《공장에서 6·18 건설돌격대원들에게 참아온 애국이 있는 것이다.》

그때부터 한순화동무는 그의 가정은 원군사업에 더 열정을 쏟아부었다. 한가지 물자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애썼고 원호돌자를 끌어내서 나쳤다. 오늘도 배우를 찾았지만 그들이 원호돌자를 찾았던 것이다.

어느덧 날이 푸른풀을 밟아왔다. 한순화동무는 어느 날짜 같이 또다시 삽과 비자루를 들고 도로에 나섰다. 원호돌자를 찾았던 것이다.

한순화동무는 그를 날마다 찾았던 것이다. 그는 그를 날마다 찾았던 것이다.

염주은하피복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

당일군에게 최광국동무는 말하였다.

《혁명의 성지를 더 잘 꾸려가는 6·18 건설돌격대원들을 성십성의로 도와주는 것은 우리에게 응당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기사장 심충철동무의 제봉 2작업반장 한봉우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조직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고 창조적지혜를 합쳐 지원돌자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마련하는 전투를 치고자 했었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일생을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에서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그들은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어제는 일상화되었던 일은 물론은 한순화동무는 그들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나를 봤다. 그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 앞으로 다가섰다.

온 겨레를 애국의 길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민족애

오늘 조국통일위업은 내외분 협주위세력의 방해책 동속에서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시련과 난관이 아무리 엄혹해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지향해 나서는 우리 겨레의 의지를 막을수 없다.

내외에서 조국통일운동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오늘의 현

실은 송고한 애국애족의 일념

을 지니고 온 겨레를 통일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봉드를

떠나 결코 생할 수 없다.

경에 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한 민족단결사상과 애국

애족의 봉드는 해내외의 각계

각종 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회

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시키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봉드 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

이 사상과 제도, 정경과 신앙

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적이 아름다운 단결하여 합

니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

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경과 신앙의 차이를 뛰

어넘어 조국통일의 가치를

하나로 굽쳐 동져야 한다는것은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본류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능하다

하시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단결을 조국통일의 근본

담보로 삼으고 그 실현을 위한

길에 끝없는 애국심의 자유

을 수놓아오시였다.

주제 87 (1998) 년 4 월

평양에서는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협회의 50돐에 즈음한 중앙연구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단결사상과 업적을 계승하여 우리 민족의 대단결위업을 세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겨레의 지향과의 그 어느 보다 높아가고 있던 때에 열린 것으로 하여 내외의 이목을 끌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겨

례의 기대와 관심 속에 성황리

에 열린 남북현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역사적

인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

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하자》를 보내주시였다.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서한에

서 우리 민족의 통일원탁과 나

라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대단

결위업을 더욱 다그쳐 나갈수

있는 사상과 윤리침을 제시하

시였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애국애족의 가치밀에 단결하며

북남판계를 개선하고 외세의

여지에 맞게 조국통일의 각계

각종 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회

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시키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봉드 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

이 사상과 제도, 정경과 신앙

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적이 아름다운 단결하여 합

니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

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경과 신앙의 차이를 뛰

어넘어 조국통일의 가치밀에

단결하며 온 민족이 서로 접

촉, 대화하고 현대, 현대 함께

된다. 그것은 세상에 알리되마

자이며 민족이 잘되고 잘

살게 하는 사람과는 언제나 순

잡고나같이이라는 그나쁜 믿음

을 안겨주지였다.

정주영선생은 다정하고 자애

깊은 말술으로 길장을 한순간

에 펼쳐주고 자기의 마음을

화기애애한 동포에 적분위기로

따뜻이 깊어지면서는 그나쁜 믿음을

다시금 더 이상은 아니었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가치

아래 하나로 단결시키려는

우리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단결로 밟으고 그 도량에 얼마나 많

은 사람들이 배혹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기념

으로 조선민족이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분을 지지하여 기네, 에짚트인

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기네 조선현선회 위원장 바

누 케이타는 7일 담화에서 지

난해에 안팎의 분별주의의 세력

의 악랄한 책 동속에서도 조선연

운동을 치적 전진하였다고

언급하였다.

6·15 북남공동선언은 조선

민족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하고 환영하는 조선통일의 리정

표이며 불변의 가치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연은 조선민족의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요

분을 지지하여 기네, 에짚트인

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기네 조선현선회 위원장 바

누 케이타는 7일 담화에서 지

난해에 안팎의 분별주의의 세력

의 악랄한 책 동속에서도 조선연

운동을 치적 전진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연은 조선민족의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요

분을 지지하여 기네, 에짚트인

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기네 조선현선회 위원장 바

누 케이타는 7일 담화에서 지

난해에 안팎의 분별주의의 세력

의 악랄한 책 동속에서도 조선연

운동을 치적 전진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연은 조선민족의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요

분을 지지하여 기네, 에짚트인

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기네 조선현선회 위원장 바

누 케이타는 7일 담화에서 지

난해에 안팎의 분별주의의 세력

의 악랄한 책 동속에서도 조선연

운동을 치적 전진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연은 조선민족의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요

분을 지지하여 기네, 에짚트인

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기네 조선현선회 위원장 바

누 케이타는 7일 담화에서 지

난해에 안팎의 분별주의의 세력

의 악랄한 책 동속에서도 조선연

운동을 치적 전진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연은 조선민족의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요

분을 지지하여 기네, 에짚트인

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기네 조선현선회 위원장 바

누 케이타는 7일 담화에서 지

난해에 안팎의 분별주의의 세력

의 악랄한 책 동속에서도 조선연

운동을 치적 전진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연은 조선민족의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요

분을 지지하여 기네, 에짚트인

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기네 조선현선회 위원장 바

누 케이타는 7일 담화에서 지

난해에 안팎의 분별주의의 세력

의 악랄한 책 동속에서도 조선연

운동을 치적 전진하였다고

